

미래 유통환경의 시험무대 'Amazon Go'

뉴욕지사



뉴욕에서 오픈 예정인 무인점포 Amazon Go

- 2018년 1월, 시애틀에서 계산대가 따로 없는 무인 식품 마켓 Amazon Go 1호점이 오픈한 이래로 현재 미국 내에는 3곳의 Amazon Go 매장이 운영 중에 있다. 그 뒤를 이어 4번째 무인점포 매장이 뉴욕에서 오픈을 앞두고 있다.
- 무인점포 매장에 들어설 때 스마트폰용 Amazon Go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킨 다음 진열대에 놓인 물건을 집어 들면 인공지능(AI) 센서가 고객을 인식한다. 그리고 고객이 물건을 들고 매장을 빠져나가면 애플리케이션에 등록된 결제 수단으로 자동적으로 비용이 결제되는 시스템이다.

2021년까지 3,000개 매장으로 확대 계획

- 블룸버그(Bloomberg) 통신에 따르면 아마존은 2019년까지 미국 내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무인점포 매장을 50곳으로 늘릴 예정이며, 특히 2021년까지 3,000곳의 매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Amazon Go 매장의 주요 타깃층은 빠르고 간편한 것을 선호하는 젊은 소비자들이다. 점원의 호객 행위 등이 없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골라서 바로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최신 트렌드에 잘 부합한다.

슈퍼마켓에 미칠 영향과 일자리 감소 논란

- 아마존이 별도의 계산원이 없는 캐시어 프리(cashier-free) 매장의 수를 공격적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뒤 주요 식품점과 소매 경쟁자들의 주가는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다. 소매업체 Walmart는 0.6%, Target은 1.5%, Kroger는 3.1%나 하락했다.
- 아마존 무인점포는 유통혁신을 이룩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한편, 일자리 감소에 따른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기도 하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무인점포가 확산될 경우 미국 내 350만 명에 이르는 계산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는다고 한다.

구매 패턴에 관한 보다 정교한 빅데이터 수집

- 아마존은 Amazon Go 매장에서 집계된 데이터를 분석한다면 소비자들의 실질적 구매 패턴에 관한 보다 정교한 빅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Amazon Go가 불러올 유통혁신에 대비해 우리 식품기업들은 무인점포 매장에 부합하는 제품개발에 힘쓰는 한편 마케팅 환경변화에도 발맞춰야 할 것이다.